

상생뉴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경원선 월계(철도)역사, 이용객 편의시설 추가 설치 중!

- 7월까지 편의시설 설치완료.. 올해 말 북부역사까지 완공 예정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중 지난 2014년 12월 우선 개통해 사용 중인 월계역사(남부)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추가설치 공사를 올해 7월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동안 지연되었던 북부역사 부출입구의 사유지 협의매수가 올해 5월말 완료됨에 따라, 6월부터 남은 공사를 추진해 올해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월계역사 신축공사는 기존의 낙후된 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 14년 12월 북부역사의 부출입구를 제외하고 우선 개통해 사용 중이다.

본부 관계자는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남은 북부역사 부출입구 건설도 올해 말까지 완공해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북부역사 조감도]

[남부역사 편의시설 추진중]



[CEO동정] 인도철도부 관계자 면담

- 철도공단, 인도 철도 현대화 사업 참여방안 논의 -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6월 9일(화) 공단 본사에서 인도철도부 사업조정국장인 Navin Kumar(나빈 '쿠마르'), 계획국장 Sandeep Srivastava(산디프 '스리바스타바')와 면담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인도철도부가 주력하는 델리~간푸르, 델리~아메다바드 등 기존선 고속화 사업 및 델리역 및 뉴델리역 등 철도역사 현대화 사업에 공단의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정부 이후 도시철도(메트로), 기존선 고속화 및 현대화, 철도역사 현대화, 화물전용철도노선 신설 등 철도인프라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며, 지난 올해 5월 한-인도 정상회담 시 100억불 규모 기간산업(인프라) 금융지원 협정 체결로 철도분야에서 한국 및 인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부 산하기관의 유일한 철도건설기관으로 2005년부터 성공적인 중국철도시장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인도철도시장을 제2의 중국시장으로 선정하여 인도 메트로, 화물철도사업, 기존선 고속화 사업 등 다양한 인도철도사업 진출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인도철도시장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금년 1월 인도에 지사를 설립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는 해외건설협회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하여 델리~뭄바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철도공단은 철도사업 수주를 위해 인도 철도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양국의 세미나, 초청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메르스 관련 철도이용자 등 불편사항 주말 현장 점검!

이번 주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경영진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건설 현장 근로자와 최근 개통 및 이용자 밀집 철도역사의 국민불편 사항 등은 없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6월 13일 09시 본사 수석처장 이상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사장, 부이사장, 본부장급이 이번 주말(13~14일)동안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 수도권고속철도 평택현장 및 동탄역사 건설현장 등 8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메르스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사항과 근로자 애로사항 및 건설현장 방역대책 이행상황 등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 이번주말 현장 점검계획 : 별첨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혈액부족을 해소하는데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6월 12일 헌혈 참여운동을 펼쳐 51명의 임직원이 헌혈에 자진 참여했다고 밝혔다.

[별첨] 메르스사태 관련 휴일 경영진 현장점검 계획

점검일자	점검현장	점검자
6월 13일(토)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	이사장, 기획재무본부장, 전철전력처장
	2호선 삼성역(이용자 밀집지역)	건설본부장, 광역민자철도처장
	1호선 신도림역(이용자 밀집지역)	부이사장, 시설본부장, 시설계획처장
	수도권고속철도 평택인근 8공구 현장	기술본부장, 건설계획처장
6월 14일(일)	수도권고속철도 동탄역	이사장, 기술본부장
	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 현장	기획재무본부장
	경부고속 대구도심 현장	건설본부장, 건설계획처장
	철도 방음벽 현장	시설본부장, 시설계획처장

철도시설공단,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3개 부문 본선 진출

- 자율적 지식혁신활동 우수사례 전파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15.5.28~29)에 5개 팀이 참가하여 3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41회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주관 : 한국표준협회)에 자유형식, 상생협력, 환경안전품질, CoP부문에 참가하여 원가절감, 품질 · 생산성 향상방안, 고객만족 개선사항 등 품질혁신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본선에 진출한 3개팀의 우수사례를 보면, 자유형식부문의 “철도터널 콘크리트라이닝 두께 최적화를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주제로 철도터널 콘크리트라이닝의 경제 설계기준 마련으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65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사례, 상생협력 부문에서는 “희망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사 해외 수주율 증대”라는 주제로 동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해외사업 포럼 및 웹 홍보물 발송 등 공단의 희망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동반 진출 역량 향상, 환경품질안전 부문에서는 “철도건설현장 안전관리방법 개선으로 안전관리목표지수 감소”라는 주제로 KR 재난알리미 구축, 신규근로자 안전체험교육 의무 시행, 품질환경 안전지수제 평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현장 관리로 무재해 달성 등 안전한 철도건설현장의 이미지를 제고 등의 내용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우리 공단 임직원들의 자율적 지식혁신 사례가 직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오늘의 뜻 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이번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의 우수한 성과를 계기로 자율적 지식혁신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으로부터 일 잘하는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철도공단, '규제 사각지대' 본격 해소에 나선다.

- 전문가를 통해 상시모니터링.. 필요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는 일회적 규제개혁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규제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전문적 내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주요내규 지속적 개선관리 체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이 도입한 내규관리체계는 공단이 발굴하여 개선중인 철도시설준용허가 규정 등 29개 중점관리 내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규제해소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고, '숨은 규제 · 부패 · 불공정 관행 · 안전 등' 사회적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단에 적용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련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생산 및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철도공단은 공단 내규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를 위해, 법무처 내에 전문 내규심사팀을 구성하여, 상호검증을 통한 규정 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는 내 · 외부 법률전문가와 공조체계를 이루어 심사하도록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본부 관계자는 “금년 내규관리체계 도입으로 숨은규제 및 부패요소 등을 보다 정밀하게 발견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철도공단-철도기술연구원, 400km/h급 고속철도 핵심기술 개발

- 환경소음, 선로구조물 및 전차선로 등 고속철도 인프라 기술 확보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김기환)과 고속철도의 인프라 핵심기술인 '환경소음 저감 장치', '선로구조물 모니터링시스템', '전차선로 핵심부품 7종'에 대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실용화를 위한 설계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익산~정읍 구간에 총길이 28km의 '400km/h급 시험선(테스트베드)'을 구축했으며, 금년 8월까지 현장 적용을 위한 성능검증 시험을 완료했다.

주요 기술개발 내용을 보면 환경소음 분야에서는 고속열차가 400km/h급의 속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3dB이상 낮추기 위해 개발한 '방음벽 상단 장치'와 '슬래브 도상용 흡음블럭'을 개발해 호남고속철도 시험선에 각 400m씩 부설해 시험한 결과

- 기존의 방음벽보다 3dB 이상의 소음 저감효과 및 방음벽 높이별 공사비를 약 8~18% 줄일 수 있었고,
- 슬래브 도상용 흡음블럭은 같은 성능의 독일 등 해외제품에 비해 20% 생산비가 저렴해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로구조물 분야에서는 시험선 내 11개소에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철도노반 침하기준 등 400km/h급 설계기준) 8건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신설될 고속철도 및 기존선 개량사업에 핵심기술로 적용이 가능하다.

1) 핵심 설계기준 8건 : 교량 구조적 설계변위, 노반 침하기준, 연약지반 판정기준, 표준동적하중 충격계수, 교량단부 사용성, 콘크리트궤도 기준, 콘크리트궤도 구성품 기준, 미기압파 기준

아울러, 전자선로 분야에서는 400km/h급 속도에서 안정적으로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구조가 단순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전자선 등 핵심부품2) 7종을 개발하였으며, 공단은 철도사업에 적용 시 단선 km 당 약 1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전자선 핵심부품 7종 : 전자선, 가동브래킷, 곡선당김급구, 인류애자, 단말급구, 균압드르퍼, 장력조정장치

강영일 이사장은 “철도기술 선진화 및 해외 고속철도시장 진출을 위해 앞으로도 고속철도 기술 국산화와 철도신기술 개발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환경소음 저감장치 (방음벽상단장치 및 흡음블럭)



선로구조물 모니터링

전자선 핵심부품 7종

철도시설공단, 장항선 개량2단계 철도사업 '석면 공동조사단' 본격 운영

- 설계 및 공사시 방지대책 반영 및 상시모니터링 시행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은 6월 11일(목) 대전 본사 회의실에서 장항선 개량2단계 철도건설사업의 광천지역(신성~주포간) 자연발생석면 통과구간의 석면비산방지를 위한 '석면 공동조사단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천지역은 자연발생석면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철도공사로 인한 석면비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석면전문가, NGO, 지역주민 대표,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석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석면 공동조사단에 위촉장 수여, 조사단의 역할 및 임무를 협의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석면 공동조사단은 설계시 적정한 방지대책 반영여부와 공사시 방지대책에 대한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정거장 위치 및 주변노선에 대한 논란으로 약 1년6개월 지연된 본 사업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15년 하반기 착공되어야, 장래 서해선과의 연계를 통해 홍성에서 수도권까지 1시간대 연결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장항선 개량2단계 사업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방음벽 추가 설치 공사 추진

- KTX 운행에 따른 소음민원 해소 및 생활불편 최소화 기대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은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노선 주변의 소음민원 해소 및 주민의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140-1번지 등 26개소에 대해 금년말까지 추가로 방음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속철도 소음기준(환경영향평가, '99.12월) : 60dB(A)

당초 KTX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치 초과가 예측된 개소는 모두 방음벽을 설치 완료하였으나,

* 환경영향평가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소음치로 개통 후 실제 열차운행에 따른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15. 4. 2일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 실제 KTX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측정결과, 26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정단축을 위해 설계와 병행 시공하여 '15.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방음벽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개통('10.11. 1) 이후 21개소 방음벽 추가 설치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KTX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등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2018년까지 계속 시행하여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수송지원' 을 위한 철도건설 본격화!

- 철도공단, 원주~강릉 철도건설 구간 궤도공사 7월부터 본격 추진 -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는 7월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구간 내에 궤도공사(연장 121km)가 추진될 계획으로, '2018년 평창 올림픽 수송지원' 을 위한 철도건설사업이 본격화 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궤도공사에 소요되는 레일, 분기기, 침목, 레일체결장치 등 주요 자재가 생산 착수에 들어가, 금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주요 궤도자재 : 레일2만280개, 분기기113틀, 침목31만876개, 레일체결장치62만1,752조 등

특히,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사업의 궤도공사는 일부 기존선과 연결되는 노선만 자갈 궤도(연장 19km)를 부설하고, 대부분은 승차감과 유지보수성이 좋은 콘크리트 궤도(연장 102km)로 시공하게 된다.

* 레일과 침목 주변을 자갈로 채운 궤도는 '자갈궤도', 콘크리트를 채워 고정된 궤도는 '콘크리트 궤도'로 통칭

본부 관계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강원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2017년 말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앙선 도담~영천간 단선 → 148.1km 복선전철화
[도담~안동(72.2km) 복선, 안동~영천(75.9km) 단선]
- 총사업비 : 3조 6,474억원 (2010~2018년)
- 사업효과 : 중앙선 도담~영천 속도향상 및 경복내륙 개발
- 운행시간 단축 : 청량리~영천 4시간56분 ⇒ 1시간48분(Δ3시간08분)
- 선로용량 증대 : 도담~안동 33→137회(복선), 안동~영천 33→40회(단선)

* 공구별 공사개요

- 도담~영천 제3공구
- 공사구간 : 경북 영주시 풍기~영주시 영주동 (L=10.5km)
- 공 사 비 : 1,624억원 (48개월)
- 시 공 사 : 대림산업(주)의 1개사
- 도담~영천 제4공구
- 공사구간 : 경북 영주시 영주동~영주시 승문리 (L=10.5km)
- 공 사 비 : 1,354억원 (48개월)
- 시 공 사 : 현대산업개발(주)의 2개사
- 도담~영천 제5공구
- 공사구간 : 경북 안동시 북후면~서후면 (L=10.5km)
- 공 사 비 : 1,154억원 (48개월)
- 시 공 사 : 현대산업개발(주)의 2개사

철도공단, 파라과이 철도운영사와 '시험궤도 건설' 양해각서 체결

- 공단과 협력해 '파라과이 경전철 시험궤도(5.5km)' 건설 추진 -

해외사업본부(본부장 오재욱)은 6월15일(월) 대전 본사에서 파라과이 철도운영사(사장 후안 로베르토 살리나스 산체즈)와 파라과이 경전철 시험궤도(5.5km)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라과이 경전철 시험궤도는 보타니코에서 콘메블(5.5km)까지 건설되는 노선으로, 파라과이 철도운영사(이하 : FEPASA)가 아순시온 경전철 건설(44km)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철도 건설과 운영경험을 쌓고 자국 내 국민들에게 철도를 소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철도공단과 FEPASA는 시범궤도 부설과 관련한 설계, 시공, 시험/시운전, 운영 및 국민 홍보 등 모든 과업의 진행을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파라과이에서 횡단철도(Curupaty~Presidente Franco, 505km) 및 아순시온 경전철 타당성조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파라과이 철도관련 기관으로부터 철도 건설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금년 4월에는 아순시온 공과대학교 경전철사업의 입찰지원용역 계약을 수주하는 등 파라과이 철도 건설사업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외에도 공단은 아순시온 경전철 건설(44km) 협력, 철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파라과이 철도와 관련하여 협력분야를 점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철도공단, 호남선·전라선 등 5개 노선에 재해예방시설공사 추진

- 약65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말까지 공사완료 계획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약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호남선, 전라선 등 5개 노선 29개소에 재해예방 시설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재해예방시설(29개소) : 호남선(12), 전라선(3), 경전선(11), 광주선(2), 여천선(1)

이번에 시행하는 공사중 옹벽설치는 호남선 김제~신태인 구간 등 13개소, 배수로는 전라선 서도~산성 구간 등 17개소, 비탈면 보호공은 호남선 신태인~정읍 구간 등 5개소로서,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상습 침수 및 비탈면 유실우려가 있는 3개소*는 우기전인 7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불입 : 재해예방 개소별 주요 공사 세부내용 1부.

본부 관계자는 “금년에 재해예방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선로에 인접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 지역주민의 농경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붙임] 재해예방 개소별 주요공사 세부내용

연번	선별	구간	위치	주요공종	단위	수량
1	호남선	김제~신태인	114km200(상우)	산마루측구(TYPE-1)	m	45
				깎기부도수로	m	9
				게비온옹벽 설치(H=2.0m)	m	42
2	호남선	김제~신태인	115km400(상우)	산마루측구(TYPE-1)	m	64
				깎기부도수로	m	16
				게비온옹벽 설치(H=2.0m)	m	44
3	호남선	신태인~정읍	123km070(하좌)	비탈면보호공(녹생토T=5cm)	m ²	89
				U형개거(600×600)	m	26
				집수정설치(1.0×1.0)	EA	1
				깎기부도수로	m	12
4	호남선	신태인~정읍	124km200(하좌)	게비온옹벽 설치(H=2.0m)	m	10
				비탈면보호공(녹생토T=5cm)	m ²	208
				비탈면보호공(녹생토T=5cm)	m ²	203
5	호남선	신태인~정읍	125km000(하좌)	산마루측구(TYPE-1)	m	39
				게비온옹벽 설치(H=2.0m)	m	19
				개거덮개설치	m	100
7	호남선	백양사~장성	150km800(상우)	U형개거(600×600)	m	73
				U형개거(1000×1000)	m	40
				U형개거(2000×1500)	m	86
				게비온옹벽 설치(H=2.0~4.0m)	m	87
				흙막이 설치(H300×300×10×15)	m	128
				전기장물시설	식	1
8	호남선	임곡~하남	175km900 상,하선(좌우)	U형개거(600×600)	m	21
				집수정설치(1.0×1.0)	EA	1
9	호남선	임곡~하남	원임곡육교하부 (하좌)	U형개거(600×600)	m	17
				U형개거(800×500)	m	48
				U형개거(1000×1000)	m	100
10	호남선	광주송정~노안	189km923(하좌)	중력식옹벽(H=2.0m)	m	308
11	호남선	나주~다시	203km458(교량)	교량배수시설 설치공사(상행)	EA	10
				교량배수시설 설치공사(하행)	EA	7
12	호남선	일로~임성리	243km000(상우)	게비온옹벽 설치(H=2.0m)	m	10
13	전라선	서도~산성 (우선 시공)	70km200(하좌)	U형개거(600×600)	m	10
				U형개거(800×800)	m	211
				중배수관(D=800mm)	m	13
				집수정설치(1.0×1.0)	EA	1
14	전라선	압록~구례 (우선 시공)	110km000(상우)	흙막이 설치(H300×300×10×15)	m	96
				비탈면보호공(녹생토T=7cm)	m ²	397
				산마루측구(TYPE-1)	m	80
15	전라선	괴목~개운 (우선 시공)	134km000(하좌)	J형측구(500×500)	m	97
				중배수관(D=800mm)	m	222
				집수정설치(1.2×1.2)	EA	8
16	경전선	순천~원창 (단좌,우)	183km810~184km280	게비온 옹벽	m	720
				L형 옹벽	m	72
				공사용 가도	식	1
17	경전선	순천~원창 (단좌,우)	190km040~190km176	가시설 설치	식	1
				석축 옹벽	m	160
				U형 수로	m	263
18	경전선	원창~벌교 (단좌)	194km200~194km500	J형 수로	m	300
				공사용 가도(B=4.0m)	m	333
19	경전선	조성~예당 (대곡천교)	214km700	사석채움	m ³	445
				스톤매트리스	m ²	143
20	경전선	예당~득량 (오봉천교)	222km100	사석채움	m ³	949
				스톤매트리스	m ²	459
				공사용 가도	m	101
21	경전선	보성~명봉 (단좌)	239km973	U형개거(0.6×0.6)	m	82
				U형개거(0.8×0.8)	m	24
				집수정(1.2×1.2)	EA	1
22	경전선	명봉~이양 (단우)	246km650	게비온 옹벽	m	77
				U형개거(0.6×0.6)	m	77
				흙막이 설치	m	77
				공사용 가도(B=4.0m)	m	42
23	경전선	능주~만수 (단좌,우)	260km050	U형개거(0.6×0.6)	m	43
				수로바닥 정지	m ²	300
24	경전선	이양~능주	264km400(단좌)	U형개거(0.5×0.5)	m	147

25	경전선	화순~남평	277km822~277km968 (단좌,우)	게비온 옹벽	m	304
				공사용 가도	식	1
				가시설 설치	식	1
26	경전선	남평~효천	287km880 (단우)	U형개거(0.6×0.6)	m	191
				U형개거(0.6×0.6)	m	340
				집수정(1.2×1.2)	EA	7
27	광주선	극락강~광주 (단우)	7km640~8km011	중력식 옹벽	m	371
				엄지말뚝	본	185
28	광주선	극락강~광주 (단우)	8km064~8km360	중력식 옹벽	m	237
				엄지말뚝	본	115
29	여천선	적량~칠비 (단우)	13km590~13km780	격자틀+앵커공	공	289
				비탈수로	m	123
				산마루측구	m	168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건설 영주시구간 본격 공사 추진

- 경북내륙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폭제 역할 기대 -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구간 중 영주시구간(사업연장 21km)의 노반공사 시공사가 5월말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주시내를 관통하는 중앙선 철도로 인해 도심이 단절되고, 철도건설목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새로 건설되는 중앙선은 고가철도로 건설되어 도심단절 해소 및 건설목업체화로 안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철도공단은 2018년 중앙선이 개통되면 열차운행속도가 당초 120km/h에서 250km/h로 고속화 되어, 서울(청량리)에서 영천까지 열차로 4시간56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최단 1시간48분으로 3시간8분이나 단축될 예정으로, 경북 내륙 지역 경제, 문화, 관광 등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량리~영주간 1시간 9분, 청량리~안동 1시간 15분 소요

본부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영주시 구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안전한 철도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 인천공항 연결철도 활주로 하부 통과 터널 현장 점검

- 쉴드TBM 및 TRcM 비개착 구간 집중 점검 및 안전시공 당부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강영일 이사장이 KTX 및 인천공항철도(AREX)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하기 위한 연결철도 현장을 15. 6. 4(목) 방문하여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공항 활주로 하부를 통과하는 비개착공사 현장을 집중점검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강영일 이사장은 인천공항 연결철도 구간 중 공항 활주로 하부를 통과하는 쉴드TBM 및 TRcM 특수공법 시공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철도 시설공단 수도권본부의 쉴드TBM 굴진현황 및 TRcM 추진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 및 초기투입 근로자, 노령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연결철도 KTX 및 AREX 열차의 연장운행으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의 편의성 제고과,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도권본부 이정환 기자〉



〈공항철도 노선도〉



〈쉴드TBM 현장 점검〉



〈TRcM 현장 점검〉

시설장비사무소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활동 실시

시설장비사무소(소장 김동엽)의 KR봉사단 21명은 2015년 6월 9일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으로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곡2리에서 배나무 과수 봉지씌우기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농촌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농가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광문 사곡2리 이장은 "700여 평의 배나무 과수원을 하는 마을 주민의 며칠째 혼자서 봉지 씌우기 작업을 하다 보니 시기를 놓칠까 답답하였는데 이렇게 도와주시 한시름 놓인다."는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요즘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이 심각한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농촌일손돕기 활동은 일손 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는 단비 같은 것이어서 앞으로도 농촌일손돕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져 기업과 농촌이 상생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설장비사무소는 2004년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창립 이래 농번기 농촌일손 돕기뿐 아니라 사무소 특성을 살려 농기계수리 봉사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시설장비사무소 홍성희 기자>



KR연구원, 업무경험을 대외에 표방하다

- '15년 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지난 5월 21일~23일 개최된 철도학회 춘계 학술대회(목포, 총 279편 논문)에서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표준 CODE 체계화' 및 '강체전차선(R-bar)시스템 국산화 개발과 표준규격 제정' 등 2건의 논문이 우수 발표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우수논문발표상 ①]



[우수논문발표상 ②]

'수량 및 단가산출표준 CODE 체계화' 논문은 ▲KRQP CODE의 구성 ▲KRQP CODE의 개정 및 이력관리 방안에 대해 기술되었으며, '강체전차선(R-bar)시스템 국산화 개발과 표준규격 제정'에서는 ▲R-bar의 국내 개발 ▲R-bar시스템의 시험기준 ▲R-bar 시스템의 제작 표준규격의 제정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관련 산업 및 학계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KR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공단이 철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한 객관적 평가의 일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조사향 연구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계기준 수립 등으로 철도건설기술의 선진화 및 글로벌 철도 전문기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R연구원 이해원 기자>

충청본부 KR봉사단 가뭃극복 농작물 물주기 봉사활동 펼쳐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 KR봉사단은 6월10일(수) 연일 가뭃으로 인한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1사1촌(이장 강승인) 옥천읍 옥각리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 날 KR봉사단 20여명은 연속되는 가뭃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양수기 및 물통을 동원하여 물주기와 고추지대 설치 및 잡초제거 등 무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노병국 충청본부장은 옥각리 마을에서 올해 5월부터 무상으로 대여해준 주말농장 덕에 가족과 함께 농촌의 정겨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신 마을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손돕기 및 재능기부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본부 유영달 기자>



호남본부, 철도기관 공동 청렴캠페인



철도공사 전남본부, 광주지방 철도사법경찰대 3개 철도기관의 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2015년 5월 28일 순천역 대합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광주지방 철도사법경찰대와 공동으로 청렴캠페인을 시행했다.

철도공단 호남본부는 철도기관 공동 청렴캠페인을 통해 순천역 이용객들에게 전단지과 청렴비누를 나눠주어 철도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철도공단의 청렴 및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홍보하였다.

이날 공동 청렴캠페인에는 철도공단 호남본부, 철도공사 전남본부, 광주지방 철도사법경찰대 3개 철도기관의 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호남본부 김광석 기자>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임실호국원서 봉사활동 가저

-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참배 및 묘역 환경정화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5월29일(금) 전북 임실군 강진면에 위치한 국립 임실호국원을 방문해 묘역을 관리하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조국 수호를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분들이 영면한 호국성지로, 호남본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참배 및 묘역 관리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호남본부 KR봉사단 10여 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참배를 시작으로 헌화 꽃 교체, 태극기 꽃기, 묘비 닦기, 잡초제거 등 묘역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봉사단원들은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깨닫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었으며, 현충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호남본부 문혜진 기자>

자매결연 마을에서 모내기 봉사활동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6월 9일(월) 본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구례군 광의면 방광마을을 찾아 모내기 봉사활동을 하였다.

호남본부 소속 KR봉사단원 10여 명은 이날 자매결연 마을에서 요청한 농가의 못자리에서 모판을 옮기고 눈에 들어가 모내기작업을 도왔다.

방광마을 강태수 이장은 "고령화와 농번기라 일손이 부족한데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도와주신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호남본부 문혜진 기자>

조손가정 돕기 위한 일일바자회 개최

- 수익금 전액 조손가정 지원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6월 11일(목) 본부 지상 주차장에서 조손가정 돕기를 위한 일일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사육 위탁관리업체 직원들과 사업지원부 직원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날랐는데, 준비해둔 식재료가 바닥이 날 정도로 직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특히, 이웃 건물에 입주해 있는 철도공사 전남본부 직원들도 동참하여 본부 직원들뿐만 및 기관간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호남본부는 이날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조손가정 3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금년 1월에 호남본부 사육 위탁관리업체(크린텍 종합관리)와 호남본부가 체결한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호남본부 곽연균 기자>

호남선·전라선 등 5개 노선에 재해예방시설공사 추진

- 약65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말까지 공사완료 계획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약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호남선, 전라선 등 5개 노선 29개소에 재해예방 시설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재해예방시설(29개소) : 호남선(12), 전라선(3), 경전선(11), 광주선(2), 여천선(1)

이번에 시행하는 공사중 응벽설치는 호남선 김제~신태인 구간 등 13개소, 배수로는 전라선 서도~산성 구간 등 17개소, 비탈면 보호공은 호남선 신태인~정읍 구간 등 5개소로서,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상습 침수 및 비탈면 유실우려가 있는 3개소*는 우기전인 7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불입 : 재해예방 개소별 주요 공사 세부내용 1부.

본부 관계자는 “금년에 재해예방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물론 선로에 인접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 지역주민의 농경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호남본부 김정환 기자)

호남본부, 재난대응 CPX훈련 시행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6월 11일 재난대응 CPX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항타기 장비가 이동 중 지반침하로 인해 전도되면서 인명 및 시설물 피해 발생”이라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호남본부장을 비롯하여 공단직원 8명 및 군장산단 1공구 협력사 직원 14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30분 여동안 실시됐다.

호남본부 재난대책본부 지역복구반의 각 반별 지휘 및 현장 통제능력 배양, 건설현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자 전원은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며 초동조치 능력을 배양하였다.

이현정 호남본부장은 “이번 재난대응 CPX훈련을 통해 사고수습에 대한 초동조치 능력을 배양하여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안전 사고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훈련으로 개인별 임무를 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본부 최광주 기자)

주요기사(2015. 6. 1~17)

2015. 06. 02. [화]

- ◆ 서울~부산 2시간10분... 4분 간격 운행 가능(문화일보15)
- ◆ 철도시설공단 조직개편... 안전관리 조직 강화 (한국일보13A, 파이낸셜뉴스26, 대전일보9, 중도일보4, 충청투데이2)
- ◆ KTX 서울 통근族 7000명... 천안·산성 승객들 “자리도 없네”(조선일보14)
- ◆ 지역 버스·항공업계 “교묘한 호남 KTX”(전남일보12)
- ◆ 하남선 복선전철사업 7월 착공(인천일보03(경기판))
- ◆ 인천도시철 2호선 16일 시운전(파이낸셜뉴스25)
- ◆ 자옥철 9호선 발 디딜 틈 생긴다(서울신문19)
- ◆ 대규모 숙박·여가시설 늘어난 삼척(강원일보20)
- ◆ 김천구미역 KTX 연가나 지연 출발(매일신문8)
- ◆ 금융공기업 평균급여 지난해 첫 감소(동아일보B04)
- ◆ ‘사이버연로 대응’ 광역단체 첫 시동(동아일보15)
- ◆ 철도공단, 남북철도연결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news1, 아시아투데이)
- ◆ 옥천에 “레일바이크 타러 오세요”(연남뉴스TV)
- ◆ 권익위, 기업 대상 ‘건전한 대관문화 조성’ 토론회 개최(NEWS, 파이낸셜뉴스)
- ◆ KTX울산역 앞 롯데쇼핑 대형 아웃렛 건립 추진(연남뉴스)
- ◆ 교통정책기술, ‘아세안 수출 기회 넓힌다’ (교통환경신문)

2015. 06. 03. [수]

- ◆ 철도시설공단 조직개편 단행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단 신설(서울 12)
- ◆ 철도공단, 철도시설관리자 역할 강화(내일 15)
- ◆ 부산시, 옛 동해남부선 철도 ‘부분 상업화’ 가다(한겨레 14C)
- ◆ 철도시설공 품질혁신 빛났다(중도 12)
- ◆ 춘천~속초 고속철 조기착공 촉구(강원도민 14)
- ◆ “대선공약 동시고속철 조기착공 하라”(강원 23)
- ◆ “강릉 도심구간 복선철 건설폐기물 수원 이송 후 처리 큰 부담”(강원도민 12)
- ◆ 자전거길, 들레길... 도담~죽령역 폐철도 테마공간 탈바꿈(중앙 R01)
- ◆ 화성산업, 복선전철 노반신설 공사 수주(경북 12)
- ◆ 싱크로 9개월새 5번 ‘시한폭탄 도로’ (경인 21)
- ◆ 당진 합덕역세권 도시개발 탄력(중도 16A)
- ◆ 내일 KTX훈련소역 국회 정책토론회(중도 15A)
- ◆ 호남선 KTX 개선방향 토론회(무등 04)
-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앞두고 ‘눈치적정’(파이낸셜 25)
- ◆ 공기업 실적주기가禍 키웠다(아시아경제 08)
- ◆ 中 ‘해상굴기’ 파나마 운하 물길 막나(서울 18)
- ◆ 철도시설공단, 전국품질보충금 경진대회 3개 부문 분선 진출(아시아투데이)
- ◆ 정부, 철도·건설 수출강화 ‘침지 않은 길’(뉴스타마토)
- ◆ 건전한 대관 문화 조성 토론회 개최(NEWS)

2015. 06. 04. [목]

- ◆ 노산시 KTX 훈련소역 신설 총력(대전일보16)
- ◆ KTX 공금 확대... 전방위 나서(광남일보2)
- ◆ 공기관 기능조정 ‘졸속’ 논란(파이낸셜뉴스6)
- ◆ 호남선 KTX 이용객 하루 1400명 서서 간다(광주일보5)
- ◆ 건설업계 “입찰담합 처벌 ‘소멸시효 5년’ 명문화”(문화일보20)
- ◆ ‘미래 투자’ 속도 내는 中·기기업... “오늘 생선” 걱정하는 한국기업(한국경제3)
- ◆ 철도시설공 영남본부, 청렴가을 나누기 캠페인(경상매일)
- ◆ 동구, ‘대전역세권 재정지속계획 변경안’ 주민공람(아시아뉴스통신)
- ◆ 한국 국제철도기구 가입 내일 결정... 열차는 북이 쥐고 있어(헤럴드경제)
- ◆ 호남선 KTX 개통 후 입석 승객 10배 ↑... 대책(종합(news1))

2015. 06. 05. [금]

- ◆ 서울 삼성~동탄 GTX 공사 내달 발주(조선일보B03)
- ◆ 호남선 KTX 매일 1300여명 서서 간다(한겨레12B)
- ◆ “KTX훈련소역, 국가안보차원 필요성 크다”(충청투데이5)
- ◆ “충남도청역 명칭 양보 못해” 홍성-예산 신경전(충청투데이16)
- ◆ 충청권광역철도망 조기추진 촉구(대전일보6)
- ◆ 부산국제철도·물류산업전 21개국 참가(한국경제26A, 한국일보14C)
- ◆ “녹고 훼손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데는 방치말라”(부산일보9)
- ◆ 北 반대, 中은 기권 韓 “정화원” 또 좌절(동아일보10)
- ◆ 한국, 101억弗짜리 ‘세네갈 도약 계획’ 참여 논의(조선일보8)
- ◆ 4대 부문 개혁 지지부진... ‘골든타임’이 가고 있다(문화일보10)
- ◆ [경제 블로그] 월급 토해낸 316개 공공기관장들 “기재부가 미워”(서울신문16)
- ◆ 30년만의 철도역사 환수에 철도공단 ‘고민’(아시아투데이)
- ◆ 광주시, 호남선 KTX 주먹구구식 교통행정 ‘도마’(news1)
- ◆ 한국철도시설공단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확인은 어디서?(이투데이)

2015. 06. 08. [일]

- ◆ 역대 최대 국제철도·물류 산업전 열린다(부산일보15면)
- ◆ 신분당선 연장선 역사 시인 불면사향 점검(경인일보04면)
- ◆ [사설]호남 KTX 언제까지 서서 가야 하나(전남일보19면)
- ◆ GTX-3호선, 파주 연장 탄력 받나(동아일보18면)
- ◆ 5년 내 31% 패차 대상 디젤기관차 부족 사태 우려(한국경제17면)
- ◆ 청와대가 외면한 ‘한국 시위, 일본선 극진한 환대 받아’(국민일보21면)
- ◆ [씨줄날줄] ‘철의 실크로드’ 의 비원(서울신문31면)
- ◆ 시속 300km 고속철에 웬 입석?...한국만 입석권 판매(종합(news1))
- ◆ 대전역세권 개발 새활로 찾는다(금강일보)

2015. 06. 09. [화]

- ◆ “분당~수서로 상부 공원화 전구간 진행”(경인 21)
- ◆ 헝가리 고속철 중국차원으로(매일경제 10)
- ◆ 도시철 3호선 첫 교차...전동차 전수조사(매일 05)
- ◆ 세종시, 부산국제철도 물류산업전 참가(대전 09)
- ◆ “정년60세 시대”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청년고용도 는다(매일경제 12)
- ◆ KTX역·버스터미널 메르스 감염 ‘무방비’ (서울 05)
- ◆ ‘방만’ 꼬리표 떼고 생산성 향상 명예회복(한국 E01)
- ◆ 철도공단, 호남선·전라선 등 5개 노선에 재해예방시설공사 추진(아시아경제)
- ◆ “1200억달러 규모의 해외플랜트를 잡아라”(헤럴드경제)
- ◆ 중동 간 유일호 국토부 장관, 국내 건설사 전방위 지원(매일경제)
- ◆ [경제와 미래]서해선 기공, 그리고 서해안선 철도(새선북신문)
- ◆ 달리던 KTX, 고라니와 충돌...긴급 정차(YTN)

2015. 06. 10. [수]

- ◆ 철도시설공, 인도 인프라 개선 참여 추진(동아일보B04,국민일보13A,서울신문29)
- ◆ 강원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도철도부와 면담(충청투데이22,중도일보13)
- ◆ 부·울·창 광역전철로 묶는다(매일경제26)
- ◆ 전주에서도 레일바이크 즐긴다(전북일보05)
- ◆ 1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전략 국제 세미나, 철도 선진국과 공유(헤럴드경제)
- ◆ 목포 철도 폐선부지공원 시민통로 각광(광주일보13)
- ◆ 1200억弗 해외플랜트 발주처 주요인사들 서울 집결(헤럴드경제06)
- ◆ 대규모시철도 3호선, 개통 47일 만에 속도 급감 사고(경향신문16)
- ◆ “정년60세 시대”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청년고용도 는다(매일경제12)
- ◆ 강원일 철도공단 이사장 인도 철도부 관계자 면담(연합뉴스)
- ◆ 한국철도시설공단, 인도 철도 현대화 사업 참여방안 논의 (금강일보,연합뉴스,아주경제,데일리인)
- ◆ 강원일 철도공단 이사장, 인도 진출 논의(뉴데일리,건설경제,대전투데이)
- ◆ 철도시설공,경원선 월계역사 편의시설 설치(파이낸셜뉴스)

2015. 6. 11. [목]

- ◆ 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1사1촌 결연마을 찾아 봉사활동(충청투데이 22)
- ◆ 목포시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 2015 지역발전사업 추진 평가 최우수(무등 11)
- ◆ ‘조랑 생대하천’ 마침내 물 만났다(부산 09)
- ◆ 철도물류전 개막(중앙일보 B05, 한겨레 18면)
- ◆ 호남 KTX, 또 고장... 터널서 3분간 정차(전남 04)
- ◆ 하루 2만명 이용 광명역 방역 ‘구멍’ (경기 10)
- ◆ “한국, 나진~하산 철도 연내 투자 기대” (동아 28)
- ◆ 中 SOC기술 급성장... 韓기업 진출 쉽지않아(문화 21)
- ◆ 대전역 일대 ‘원도심’ 살아나(한겨레 12B)
- ◆ “27조원대 中엔지니어링시장 잡아라”(문화 21)
- ◆ 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재해시장을 더 높인다(한겨레 10)
-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드라이브(매일경제 12)
- ◆ “공공기관 평가 ‘유명무실’... 부정시험에 형세 ‘평평’”, 관련 반론보도(뉴스타마토)
- ◆ 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1사1촌 결연마을 찾아 봉사활동(충청투데이, 금강)
- ◆ 철도공단 시속 400km급 고속철도 핵심기술 개발(연합뉴스, 서울경제)
- ◆ ‘2015 부산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news1)
- ◆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전기공사, 낙차자 유격(전기)
- ◆ 공기업 발주공사 시장재해 평균보다 높아...나·한전·도공·철도공단에 집중(이투데이)

2015. 06. 12. [금]

- ◆ 철도공단 철도주변 방음시설 설치(충청투데이7)
- ◆ 출저어 선 대형사업... 道 “내년 국비 10조3천억 잡아라”(경기일보3)
- ◆ 홍성역 일대 시설보강·개발계획 새판짜다(충청투데이16)
- ◆ 현대로템, 동력보산식 고속철 ‘해무 430X’ 로 터키시장 뚫는다(파이낸셜뉴스15)
- ◆ 中 고속철로 동서횡단(매일경제12)

- ◆ 미니트램·무인전동차... 부산에 총집결(한국경제24A)
- ◆ “창원~김해~부산~울산 광역전철, 등부권 쏠림 막아야”(경남신문4)
- ◆ 잇단 지연운행 도시철 3호선 제작사 참여 합동 정밀점검(경북일보1)
- ◆ 철길에 막혔던 두 지역, 이젠 철길 덕분에 만난다(경상일보11)
- ◆ 세곡동 기차길, 산책길 됐다(서울신문15)
- ◆ ‘공공기관 직원 대규모 감염’ 대비한 매뉴얼 없었나(한겨레6)
- ◆ [사설]KTX 노선훈련소역,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대전일보23)
- ◆ [사설]광역전철시대, 경남서부권 개발 배려해야(경남신문27)
- ◆ 철도시설공, 청양선 개량2단계 ‘석면 공동조사단’ 운영(파이낸셜뉴스, NEWS1 외 12개)
- ◆ 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방음벽 추가 설치(서울경제, 충청투데이 외 8개)
- ◆ 스펙 초월 능력 중심 NCS 기반 채용의 평가 기준, 제 1회 NTEB 시행(MK뉴스)

2015. 06. 15. [일]

- ◆ 중부내륙철도 사업, 1년 주민갈등 풀었다(한국일보27A)
- ◆ 고속철 민관 수주단, 첫 수주 위해 말레이에 동지(파이낸셜뉴스16)
- ◆ 철도이용자 메르스 불변 점검(대전일보9)
- ◆ 중동국기들 한국에 깊은 신뢰... 건설수주 약영향 없어(매일경제24)
- ◆ 동서고속철 조기착공 4개 시·군 공동대응(강원일보23)
- ◆ “중부내륙철 도심관통지 지하화해야”(중도일보17)
- ◆ 얼지않는 나진항 중·러 각축... 한국은 팔짱(매일경제12)
- ◆ [주간경제이슈] 116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조선비즈)
- ◆ 철도공단, 메르스 관련 철도역사 주말 현장 점검(헤럴드경제,충청일보,충남일보)

2015. 06. 16. [화]

- ◆ 철도공, 파라과이에 경전철 노하우 전수(한국경제24)
- ◆ 아산신도시 탕정역 신설 가시화되나(대전일보11)
- ◆ 대통령 언급 불구 호남KTX 2단계 지지부진(무등일보2)
- ◆ 능장 여타에 도 철도예산 타 지역에 뺏길 판(강원일보2)
- ◆ 정부, 해외건설 정책 엮박자 ‘훈련’(헤럴드경제24)
- ◆ 韓·日협력 프로젝트 50여건... 亞 인프라·자원개발 집중(매일경제12)
- ◆ 인도만?... 파키스탄 ‘새 아시아 호랑이로 주목’(한국경제3)
- ◆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한국경제4)
- ◆ 정부 ‘임금피크제 포함 노동개혁안’ 금주 발표(매일경제10)
- ◆ [사설]춘천~속초 고속철 착공 여부 또 해 넘길 작정인가(강원일보7)
- ◆ [사설]SOC 사업 계획대로 추진돼야 전복이 산다(전북일보15)
- ◆ 철도공단, 파라과이에 경전철 시험궤도 건설 양해각서(아시아경제,머니투데이 외 19개)
- ◆ 말레이 “한국기업, 말-싱가포르 고속철도 수주 참여 희망”(아시아경제)
- ◆ 공항철도→1·4호선 환승 증가(머니투데이)
- ◆ 해외건설 7천억弗 이젠 ‘질적 제고’... 해외투자개발형사업 6건 확정(news1)
- ◆ 중국 하얼빈~독일 15일만에 도착하는 열차 첫 운행(파이낸셜뉴스)

2015. 06. 17. [수]

- ◆ 원주~강릉철 궤도 내달 착공 (강원도민일보4,충청투데이4)
- ◆ “KTX 노선훈련소역 신설해야” (중도일보14A)
- ◆ “수서KTX 노선에 전라선 빠져” (전북일보1)
- ◆ [새벽메이리]철도건설,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 (전북일보15)
- ◆ 현대로템 ‘철도 유지보수 신성장동력 육성’ (경남신문10)
- ◆ 신입로템대교~신외주 끊긴 도로 깔고 韓중고속철로 경제脈 잇자 (매일경제4)
- ◆ 경전선 폐선 활용 ‘남도순례길 사업’ 경남·전남 8개 시·군 협의회 꾸린다 (경남신문9)
- ◆ 공공기관 경영실적 성적표 공개 (한국일보2)
- ◆ 철도공단, 사회적 이슈 내규에 반영...규제개선 본격화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외 7개)
- ◆ 원주~강릉 철도건설 구간 궤도공사 7월부터 본격 추진 (서울경제, 연합뉴스 외 21개)
- ◆ 부산국제철도·물류산업전 31억 달러 수출상담 (NEWS)
- ◆ “국토부, 공수 여타로 철도사업 3조원대 과투자” (머니투데이)

경조사

시설장비사무소 궤도지원부 윤주식 차장 부친상
 □ 발 인 : 2015년 6월 6일

호남본부 재산부 전진호 부장 빙모상
 □ 발 인 : 2015년 6월 15일

영남본부 재산부 김영철 차장대우 빙부상
 □ 발 인 : 2015년 6월 19일